

# 비대면 강의 체제, 과도기 넘어 안정 찾을 수 있을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김창호 기자 kc\_hoo@khu.ac.kr

#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도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대전환의 시대” 한군데 총장이 전한 졸업 축사의 일부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학이 전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구성원 안전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비대면 강의, 대면 시험 원칙, 그리고 등록금 반환 등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이 서서히 봉합되어 가는 지금, 1학기가 직면했던 문제점과 2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짚어본다.

## 전염병의 확산, 불가피했던 혼란

지난 3월 10일,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학사일정을 변경하고, 개강 후 4주 가량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대면 수업의 연장선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불만이 터져 나온 곳은 실험·실습·실기가 주를 이루는 강의였다. 기존 공지에 따르면 3월 30일 이후 비대면 수업이 어려운 해당 강좌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격변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상응하는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시간 고민 끝에 학교가 내놓은 대책은 ‘제한적 대면 수업’의 허용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의 지침 준수와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그런데 실제 동적 활동을 요하는 체육, 합창 등의 강좌와 헤드셋과 마이크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어학 강좌 등은 제한적 대면 수업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해당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집중이 수시간까지 사태가 진정되기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다. 주거 문제를 겪은 이들도 있었다. 최건희(학의예 2019) 씨는 “대면 수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계약해지를 고민해야 했다”며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불안감에 8월말까지 자취방 계약을 지속했던 탓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의 결정과 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

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조율을 긴급히 처리한 타 학교에 비해, 그러지 못한 우리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종강을 한달 반 앞둔 5월 11일, 우리학교는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운영을 확정했다. 4월 초 1학기 전면 비대면 운영을 발표한 서울대, 이화여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과 는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교무처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내린 의사결정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운영 계획 확정했는데” 다시 빨간불 켜진 코로나19

다소 혼란스런 1학기를 끝맺어가던 7월 14일, 우리학교는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 운영하고, 기말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치른다는 방침이었다. 1학과와 달리 2학기는 학기 초 혼란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실험·실습 및 실기 전공강좌, 배정 인원 20명 이하의 이론 및 복합(이론+실험·실기·실습) 전공강좌, 20명을 초과하는 복합 전공강좌의 실험 수업 등은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양 수업은 배정 인원 이하에 관계없이, 이론·복합 전공강좌 이론 수업은 배정 인원이 20명을 넘으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대면 수업 병행이 또 한 번 미뤄지면서 실험·실습 및 실기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월 24일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긴급 학사공지를 게재했다.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모든 강좌를 10월 4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교무처 또한 하루 뒤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교무처는 “비대면 수업에 예외는 없다”며 “실험·실습 및 실기 강좌의 경우 추후 집중 이수 기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법규학적 상황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된 점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면 수업을 준비 중이던 이들은 앞길이 막막한 심정이다. 전체 160개 가량 강좌 중에서 100개가 넘는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음악대학은 비상이 걸렸다. 음악대학 김형규(기악학 2017) 학생회장은 “불만과 실망감이 섞인 학우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전에 고지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며 “준비기간 없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는 지난 학기 ‘경희톡’으로 통일됐지만, 정작 중요한 학사 공지는 매일이나 총학생회의 공지사항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희톡도 입 당시, 정보처는 교내 공지사항은 모두 경희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고, 양방향 소통 플랫폼이라 소개한 바 있다. 기존의 ‘KHU알리미’에 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드러졌다. 하지만 경희톡 공지사항을 검토한 결과, 10월 4일까지 전과목 전면 비대면 수업 진행 안내, 등록금 반환 결정 등의 중요한 정보는 게재되지 않았다. 김지현(호텔경영학 2017) 씨는 “대부분의 학사 공지는 경희톡이 아닌 총학생회 SNS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소통 수단을 마련한 만큼 학사 공지 용도와 교강사 및 학생 간의 소통을 돕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플랫폼 일원화 · 세부 성적 공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성적 기준은 교강사 재량으로 남아

비대면 강의 초기,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교강사마다 다른 강의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Google Classroom’, ‘Cisco Webex’, ‘ZOOM’ 등의 플랫폼 상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학기 말에는 ‘경희대학교 e-campus’라는 플랫폼까지 세로이 추가됐다. 이는 ‘Google Classroom, Cisco Webex’ 외에도, 단과대학 및 교수님 별로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교무처 수강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 각 플랫폼마다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됐지만, 일원화되지 못한 플랫폼은 출석 및 성적 확인에 문제를 야기했다. ‘Google Classroom’을 강의 플랫폼으로 택한 경우, 플랫폼 내 출석 확

### 1학기

- 정해진 플랫폼 없이 교강사가 원하는 플랫폼 선택하여 진행
- 비대면 강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낮은 만족도 점수
- 학사 결정 지연으로 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 혼란 야기
- 대면 - 비대면 수업 간의 기준 모호

### 2학기

- 강의 플랫폼 e-campus로 통일
- 교육 개선안 마련 약속
- 세부 성적 기준 공개

강의 질, 플랫폼

학사 혼란

소통 방식

### 남겨진 과제들

- 강의 플랫폼 불안정, 보완 필요
- 학생들이 포함된 코로나 대응 TF 팀 운영 여부에 대한 결정
-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교육 개선안 마련
- 세부 성적 기준, 강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교강사의 협조

인 기능이 없어 학기 내내 출석 과제가 부여됐다. 또한 플랫폼에 따라 출석, 과제 제출 여부 등 성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제캠퍼스 양성민(원전력공학 2015)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 권고에 따라 각 강의별 출석 과제가 과목마다 무분별하게 부여됐는데,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자료의 형태와 질도 통일되지 않았다. 동영상, PPT, PDF, Youtube 링크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가 업로드 되었고, 음질과 화질 역시 표준화되지 못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학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촬영한 지 오래된

이전 강의 제공, 유튜브 자료 시청, 지나치게 짧은 강의 등 관련 사례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비대면 수업이 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2.6점(5점 만점)에 머물렀다.

2학기부터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교무처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학기부터 강의 플랫폼은 ‘경희대학교 e-campus’와 ‘Cisco Webex’로 한정된다. 단순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되며, 녹화 강의 및 실시간 화상 강의만 허용된다. 교무처는 “이번 조치로 많은 플랫폼에서 오는 혼동이 줄고, 수강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플랫폼에 대한 사 용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어 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학기 논의된 ‘세부 성적 공개’도 이번 2학기부터 실시된다. 최 회장은 “세부 성적 공개는 절대평가로 정확한 성적 근거를 알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 측에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정확한 성적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세부 성적 공개가 공식화되었지만, 교강사가 이를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양

회장은 “본부에 세부 성적 공개와 그 기준을 규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수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현재로서는 나름의 성적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무처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좌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면서도 “수업 운영에 대해 교무처가 교강사에 게 부여할 수 있는 페널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교강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강제할 순 없다는 의미다.

## 여전히 남겨진 과제

지난 학기 학교와 학생이 평행선을 달린 이면에는 ‘소통’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측이 ‘선택적 P/NP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빚을 당시, 총학은 “학우들의 힘을 모아 달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총 5,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6월 23일에는 서울캠 본관에서 집중공동행동을, 이튿날인 25일에는 국제캠 사색의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경희대는 소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밖에도 선택적 P/NP제 도입에 대한 양측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학교는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진행된 총강 참여 소통간담회에서도 해당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총학은 “학

우들의 성원에 감사드리지만 선택적 P/NP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으로 학생 대표를 포함한 ‘긴급대책회의 TF’를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만 머무른 상태다. 양 회장은 “TF에 학생 대표가 포함된다면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견을 본부에 전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5일 소통간담회에서 학교는 “코로나19 대책회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28일 등록금 반환을 두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전까지 갈등을 빚어온 것 역시 ‘소통 부재’가 주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후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
- 2차 학생 신청기간** : 2020.8.20(목) 09:00 ~ 9.15(화) 18:00  
\* 일 ·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8.20(목) 09:00 ~ 9.21(월) 18:00  
\* 단, 2020.9.15(화) 18:00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http://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주소 : http://mo.kosaf.go.kr/apps  
•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 국 장 학 재 단